



시간이 흐를수록 급변하는 사회와 그 복잡성은 개인의 진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Arnold & Jackson, 1997). 이 때문에 일생동안 한 직업을 지속하는 것이 드물어진 현대 사회에서 진로상담의 필요성은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김나라, 방재현, 정진철, 2012; Savickas et al., 2009). 진로상담에 대한 요구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국가 경쟁력 증대와 같은 사회적 차원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김봉환, 2008). 또한,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직업과 경력에 큰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한 번의 진로 결정에 의한 평생직장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진로발달에 대한 이전과 다른 이해가 요구됨에 따라 진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들이 발생하게 되었다(Krumboltz, 1998; 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Pryor & Bright, 2003).

그동안의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통제 불가능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연 사건이 개인의 진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신순옥, 박서연, 이상희, 2015; Betsworth & Hansen, 1996; Bright, Pryor, & Harpham, 2005). 이와 유사하게 호주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Bright 등(2005)의 대규모 조사 연구에서 표본의 69.1% 이상 진로결정에 있어 우연 사건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Betsworth와 Hansen(1996)의 연구에서도 우연 사건이 개인의 진로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의 코칭 및 상담 분야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신순옥 등(2015)의 질적 연구에서도 진로 전환 국면을 경험한 연구 대상자들은 우연적 요소가 현재의 진로를 결

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지각했다. 특히, 진로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과의 우연한 만남을 진로 전환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진술했다. 신순옥 등(2015)은 우연의 영향력을 지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으로 Mitchell 등(1999)이 제시한 우연 기술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최근 진로 연구에서 우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중 예측 불가능한 현실에 따른 진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계획된 우연 이론(Planned Happenstance Theory; Mitchell et al., 1999)’이다. 계획된 우연 이론은 Krumboltz(1998)의 우연학습이론(HLT: Happenstance Learning Theory)을 근간으로 발전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우연의 연속인 인생에서 우연적인 진로 기회를 접하고, 그 사건을 통하여 개인이 진로를 어떻게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지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연의 연속인 삶 속에서 개인은 자신이 가진 기술에 따라 우연 사건을 진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학습의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연은 예측 불가능하고 계획하지 않은 사건이며,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우연을 활용하여 개인의 기술에 따라 우연 사건들을 최대한 긍정적인 진로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견지에서 발생된 개념이 ‘계획된 우연’이다(Mitchell et al., 1999). Mitchell과 동료들(1999)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우연 진로 사건들은 다섯 가지 계획된 우연 기술에 의해 촉진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계획된 우연 기술이란, 개인이 우연한 사건을 자신의 진로 발달의 기회로 삼도록 촉진시키는 학습 기술을 말한다. 이들이 제시한 다섯 기술로는 호기심

(curiosity), 인내성(persistence), 유연성(flexibility), 낙관성(optimism), 위험감수(risk taking)가 있다. 호기심은 새로운 학습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고, 인내성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유연성은 태도나 환경을 적응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낙관성은 새로운 기회를 가능성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험감수는 불확실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Mitchell et al., 1999). Mitchell과 동료들(1999)은 예기치 못한 사건을 인지하고, 창조하고, 기회로 발견하여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이 다섯 가지 우연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우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래의 예기치 못한 사건에 도움이 되는 직업 정보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Kim, Jung과 동료들(2014)에 의해 계획된 우연 이론을 바탕으로 계획된 진로 우연 척도(PHCI; Planned Happenstance Career Inventory)가 개발되면서, 이를 활용하여 진로발달에 있어서 우연의 기술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황현덕, 장선희, 정선화, 이상민, 2012; Kim, Jang et al., 2014; Kim, Lee, Ha, Lee, & Lee, 2015; Rhee, Lee, Kim, Ha, & Lee, 2015). Kim과 동료들(2015)의 연구에 따르면, 우연 기술은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감소에 기여하며, 진로자기결정효능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Kim et al., 2015)에서 우연 기술은 다른 진로 변인들에 대해 한 시점에서 효과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종단적 변화를 측정했을 때에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연 기술의 효과를 밝힌 또 다른 연구에서도 우연 기술은 진로관여와 진로결정자기 효능감과 정적 상관을 보고했으며(Kim, Jang et

al., 2014), 황현덕 등(2012)의 연구에서도 우연 기술과 진로포부, 직업탐색행동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진로 정체감 단계와 우연 기술 간의 관계를 살핀 연구가 이루어졌다(정지후, 이상희, 2014; Rhee et al., 2015). 이들 연구에서 진로정체감은 발달 단계가 있고, 여섯 단계의 진로정체감을 예측하는 우연 기술의 하위 변인이 각각 다름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우연 사건 또는 우연 기술이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에만 주목하고 있을 뿐, 어떠한 기질적 변인에 의해 우연 기술이 예측되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우연 기술은 급변하는 사회의 불안정함 속에서도 개인이 학습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발전시키도록 돕는 자원이 된다. 이 점을 상기시켜 보았을 때, 우연 기술의 예측 요인인 개인차를 탐구하여 진로 장면에서 우연 기술이 촉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격 변인은 개인차를 밝히는 연구에서 오랫동안 매우 주요하게 다루지는 요인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격 5요인'은 개인의 성격을 범주화함으로써 기질과 개인차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많은 기여를 해왔던 요인이다. 진로 연구 영역에서도 성격과 관련한 진로 변인의 양상을 밝히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연 기술 발휘를 예측하는 개인차를 탐색할 수 있는 성격 5요인과 관련된 우연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성격 5요인(Big Five personality traits)이란, 외향성(extraversion),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총 다섯 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진

성격 분류 체계이다. Buss(1989)와 Goldberg(1992)에 따르면, 이 요인은 개인차 및 개인행동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향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좋아하는 기질로,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성이 높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 친화성은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기질로, 협조적이고 인정이 많은 경향이 있다. 성실성은 사회 규범, 원칙을 기꺼이 지키고자 하는 기질로, 성실성이 높으면 근면하고, 책임감 있으며, 계획적인 경향이 있다. 정서적 안정성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서적 안정성이 낮으면 걱정이 많고, 높은 긴장을 호소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지적 자극, 변화, 다양성 등을 지향하는 기질로, 개방성이 높으면, 호기심이 많고, 창의력 있으며, 지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는 경향을 가진다(McCrae & Costa, 1997).

성격 5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은 주로 함께 언급되는데(Barrick & Mount, 2000; Ferguson, 2004; Terracciano, Löckenhoff, Zonderman, Ferrucci, & Costa Jr., 2008), 이는 다른 나머지 성격 요인들보다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의 진로 변인과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 연구에서는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은 진로결정(career decidedness)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Lounsbury, Hutchens, & Loveland, 2005; Lounsbury, Tatum, Chambers, Owen, & Gibson, 1999).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은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이 우연 기술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즉,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의 경우, 그 안정적 특성 때문에 우연 기술의 인내심을 예측할 가능성이 높다. 친화성과 진로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살핀 연구는 찾기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외향성을 지닌 사람들의 진로 영역에서의 특성을 밝힌 논문은 많다. 대표적인 선행 연구 결과를 보면, 내향성을 지닌 사람들에 비해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 최대한 많은 기회를 활용하고(Zafar & Meenakshi, 2011), 위험을 감수하고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Rim, 1963). 또한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고 유연성이 높다고 보고된다(Carver & Connor-Smith, 2010; McCrae & Costa, 1985; John & Srivastava 1999; McCrae & John 1992). 개방성은 낙관성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밝혀졌으며(Lounsbury et al., 2003; Lounsbury, Saudargas, Gibson, & Leong, 2005), 진로 관련 위험감수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Holland & Gottfredson, 1994; Nicholson, Soane, Fenton O'Creavy, & Willman, 2005).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외향성과 개방성은 우연 기술의 하위 변인들을 유의미하게 예측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친화성은 성격 5요인 중 진로변인과의 관계가 밝혀진 바가 거의 없는 변인이다. 소수의 연구에서 친화성이 진로 관련 변인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함이 보고되었다. 권해수(2014)와 송지은과 이정윤(2014)의 연구에서 친화성은 취업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 등과 같은 진로 변인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Hartman과 Betz(2007)의 연구에서도 성격 5요인과 진로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탐색했을 때, 친화성은 다른 성격 하위 변인과 달리 진로자기효능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이외에는 친화성은 진로 연구에서 자

주 언급되지 않았으며, 진로 변인에 대해 친화성이 갖는 구체적인 효과를 밝힌 연구도 드물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진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우연 기술과의 관계에서 친화성이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Krumboltz(2009)는 한 개인이 우연한 사건을 진로 기회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러한 개방성을 언급한 바 있다. Krumboltz(2009)는 성격의 한 요인으로 꼽히는 개방성을 통해 사람들이 우연한 사건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개인의 학습을 촉진하고, 진로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본 것이다. Hirschi(2010)는 Krumboltz(2009)의 이러한 이론적 제안을 바탕으로 성격과 우연 사건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Hirschi(2010)에 따르면, 우연 사건은 직장전환기의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외향적인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우연 사건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에서는 개방성이 높을수록 우연 사건의 영향력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보여주며 Krumboltz(2009)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과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직장전환기에 놓여있는 대학생의 개방성 및 외향성 등 그들의 기질적 요인 또한 그들의 우연기술을 예측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와 같이 주요 이론과 선행 연구들에서도 성격의 개인차에 따라 우연 사건을 어떻게 진로 기회로 받아들이는 지에 대해 주목하고는 있지만, 오직 성격의 하위 요인 중 개방성과

외향성에 대한 탐색만 이루어져 있을 뿐 아직 경험적 연구 결과들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다. 최근 Mitchell과 동료들(1999)의 이론적 제안을 바탕으로 계획된 우연 기술을 측정하는 척도(Kim, Jung et al., 2014)가 개발됨에 따라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즉, 우연 기술과 개인차 변인으로서의 성격 5요인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우연 기술을 예측하거나 영향을 주는 독립 변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우연 기술과 성격 5요인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진로상담자의 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상담 장면에서 진로상담자는 내담자가 본인의 성격적 기질을 수용하고, 해당 성격적 특성의 장점을 강화함으로써 예측되는 우연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의 성격 요인을 기반으로 예측되는 높은 우연기술은 강화함과 동시에 낮은 우연기술은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우연기술을 효과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진로상담자는 내담자의 기질과 우연 기술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성격적 장점 강화 및 우연기술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연 기술과 성격 5요인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양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성격 5요인 중 개방성은 우연 기술의 하위 변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둘째, 성격 5요인 중 외향성은 우연 기술의 하위 변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셋째, 성격 5요인 중 성실성은 우연 기술의

하위 변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성격 5요인 중 정서적 안정성은 우연 기술의 하위 변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성격 5요인 중 친화성은 우연 기술의 하위 변인들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성은 우연 기술의 하위 변인들을 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둘째, 외향성은 우연 기술의 하위 변인들을 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셋째, 성실성은 우연 기술의 하위 변인들 중 일부만을 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넷째, 정서적 안정성은 우연 기술의 하위 변인들 중 일부만을 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다섯째, 친화성은 우연 기술의 하위 변인들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않을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수업시간의 과제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 대해 설명한 후 원하는 사람에게 한하여 지원자를 받아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수업 가산점 1점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 성실성을 고려하여 376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는 198명(52.7%), 여자는 124명(33.0%)이었다.

376명 중 54명(14.4%)은 성별을 묻는 문항에 응답하지 않아 결측치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변수로 투입하지 않고, 성격 특성이 우연 기술을 예측하는지 탐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당 결측치를 모두 분석에 포함시켰다. 참여자의 학년분포는 1학년 61명(16.2%), 2학년 158명(42.0%), 3학년 67명(17.8%), 4학년 36명(9.6%)으로 나타났다. 이중 진로상담을 경험한 학생들은 110명(29.3%),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은 212명(56.4%)이었으며, 진로를 결정했다고 답한 학생들은 164명(43.6%),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158명(42%)이었다.

### 측정도구

#### 성격 5요인 척도

본 연구에서는 Saucier(1994)의 단축형 성격 5요인 단극형 형용사 척도(Mini-Markers: A Brief version of Goldberg' Unipolar Big-Five Makers)를 박일경(2009)이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Saucier(1994)의 단축형 성격 5요인 단극형 형용사 척도는 Goldberg(1992)가 개발한 성격 측정용 형용사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단축형으로 개발한 것인데 5개의 하위요인별로 20문항씩 구성된 Goldberg(1992)의 척도에 비해 각 요인별로 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하위요인은 외향성(extraversion), 개방성(openness),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은 8점 Likert 척도로 '자신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가 1점, '자신과 완전히 일치한다'가 8점을 나타낸다. Saucier(1994)의 단축형 성격 5요인 단극형 형용사 척도의 타당도

를 살펴보면, Mooradian과 Nezelek(1996)의 연구에서 NEO-FFI와는 외향성 .62, 성실성 .68, 친화성 .69, 개방성 .57의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적 안정성의 경우 NEO-FFI의 하위인 신경증과 -.54의 상관을 보고하였다. Saucier(1994)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Cronbach's alpha)는 .70 ~ .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 .82, 성실성 .75, 친화성 .70, 개방성 .78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 .74로 나타났다.

### 계획된 우연 기술 측정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우연을 측정하기 위해 '계획된 우연 진로 척도(PHCI; Planned Happenstance Career Inventory)'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계획된 우연 이론(Mitchell et al., 1999)을 바탕으로 Kim, Jung과 그의 동료들(2014)이 개발한 한국판 척도이며, 호기심(Curiosity), 인내성(Persistence), 유연성(Flexibility), 낙관성(Optimism), 그리고 위험감수(Risk-taking)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로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을 나타낸다. 높은 점수를 기록할수록 계획된 우연 기술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호기심 문항의 예로 '나는 내 주변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에 호기심을 갖는다', 인내성 문항의 예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겠다', 유연성 문항의 예로 '나는 우연히 발생한 사건에 따라 진로의 방향을 트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낙관성 문항의 예로 '나는 미래의 진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위험감수의 예로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진로를 추구하겠다'가 있다. Kim, Jang과 그의 동료들(2014)의 연구에서 계획된 우연 진로척도는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척도(CDSE-SF;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Scale Short-Form)와는 .56의 상관을 보였고, 진로준비행동척도(CPB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ale)와는 .23의 상관을 보임으로써 척도의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또한 Kim, Jung과 그의 동료들(2014)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Cronbach's alpha)는 .65 ~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호기심 .73, 인내성 .84, 유연성 .65, 낙관성 .82, 그리고 위험감수 .81으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의 응답 성실성을 확인하였으며, 결측치에 대해서는 EM(Expectation-Maximization)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에는 SPSS 통계 프로그램 21.0이 사용되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  $\alpha$ 를 계산하였으며,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과 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등의 기초분석을 실시했다. 이후 연구 모형에 포함된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격 5요인과 계획된 우연 기술 5개의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다중회귀분석(Multivariat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다변량 다중회귀분석은 다수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영향력을 동시에 분석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에 성격 5요인인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 정서적 안정성을 투입하고, 종속변인에 계획된 우연 기술 5개의 하위요인인 호기심, 인내성,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를 투입하였다.

### 결 과

먼저 분석에 포함된 성격 5요인과 우연 기술의 하위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성격 5요인 척도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고한 하위 변인은 친화성이었고( $M=5.66$ ,  $SD=.75$ ), 가장 낮은 평균을 보고한 하위 변인은 정서적 안정성이었다( $M=4.73$ ,  $SD=.88$ ). 우연 기술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고한 것은 낙관성이며( $M=3.79$ ,  $SD=.55$ ), 가장 낮은 평균을 보고한 것은 위협감수( $M=3.43$ ,  $SD=.59$ )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연기술이 성격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1에 본 연구 분석에 포함된 성격 5요인과 우연 기술의 하위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성격 5요인을 기준으로 우연 기술의 하위 요인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외향성과 개방성은 우연 기술의 다섯 가지 하위 요인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드러냈다. 이에 반해 성실성은 인내심( $r=.29$ ,  $p<.001$ ), 낙관성( $r=.26$ ,  $p<.001$ )과의 관계에서만 정적으로 유의했으며, 친화성은 인내심( $r=.15$ ,  $p<.01$ ), 낙관성( $r=.19$ ,  $p<.001$ ) 그리고 위협감수( $r=.14$ ,  $p<.01$ )와의 관계에서만 정적으로 유의했다. 정서적 안정성은 우연의 하위 기술 중 호기심( $r=-.12$ ,  $p<.05$ )과의 관계에서는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들, 인내심( $r=.22$ ,  $p<.001$ ), 낙관성( $r=.12$ ,  $p<.05$ ), 위협감수( $r=.11$ ,  $p<.05$ )와의 관계에서는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격 5요인이 우연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5요인 성격 특성의 각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우연기술의 각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 관계를 동시

표 1. 변인 간 Pearson 상관 및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 외향성	-									
2. 성실성	.13**	-								
3. 친화성	.09	.46***	-							
4. 개방성	.18***	.35***	.18***	-						
5. 정서적 안정성	.04	.21***	.21***	.03	-					
6. 호기심	.31***	-.00	.02	.31***	-.12*	-				
7. 인내심	.21***	.29***	.15**	.21***	.22***	.29***	-			
8. 유연성	.18***	-.02	.06	.22***	-.04	.48***	.24***	-		
9. 낙관성	.17***	.26***	.19***	.21***	.12*	.35***	.52***	.29***	-	
10. 위협감수	.19***	.08	.14**	.29***	.11*	.44***	.61***	.38***	.46***	-
<i>M</i>	4.73	5.40	5.66	5.12	4.73	3.56	3.57	3.69	3.79	3.43
<i>SD</i>	.93	.78	.75	.87	.88	.52	.52	.50	.55	.59

주. 각 변인별 N = 376.

\*  $p<.05$ , \*\*  $p<.01$ , \*\*\*  $p<.001$ .

표 2. 성격 5요인이 우연 기술에 미치는 영향 (다변인 다중 회귀분석)

독립변수 <sup>a</sup> 종속변수 <sup>b</sup>	<i>B</i>	<i>SE</i>	$\beta$	<i>t</i>	<i>Wilks' λ</i>	<i>F</i>
<b>외향성</b>						
호기심	.15	.03	.27	5.71***	.91	7.14***
인내심	.09	.03	.16	3.21**		
유연성	.08	.03	.15	2.97**		
낙관성	.07	.03	.11	2.25*		
위험감수	.09	.03	.14	2.73**		
<b>성실성</b>						
호기심	-.09	.04	-.13	-2.40*	.88	10.21***
인내심	.14	.04	.20	3.55***		
유연성	-.10	.04	-.15	-2.49*		
낙관성	.11	.04	.16	2.75**		
위험감수	-.08	.04	-.10	-1.69		
<b>친화성</b>						
호기심	.02	.04	.03	.52	.98	1.59
인내심	-.01	.04	-.02	-.30		
유연성	.05	.04	.08	1.43		
낙관성	.05	.04	.07	1.21		
위험감수	.08	.04	.10	1.77		
<b>개방성</b>						
호기심	.18	.03	.30	5.95***	.88	9.88***
인내심	.07	.03	.11	2.13*		
유연성	.13	.03	.23	4.28***		
낙관성	.08	.03	.12	2.29**		
위험감수	.19	.04	.28	5.23***		
<b>정서적 안정성</b>						
호기심	-.07	.03	-.12	-2.50*	.94	5.13***
인내심	.10	.03	.17	3.44**		
유연성	.16	.03	-.03	-.67		
낙관성	.04	.03	.07	1.32		
위험감수	.07	.03	.10	1.99*		

주. 독립변수에 성격5요인의 모든 하위변인(외향성,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 정서적 안정성), 종속변수에는 5요인의 하위요인(호기심, 인내성,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이 모두 투입되었음.

<sup>a</sup>성격 5요인 척도. <sup>b</sup>계획된 우연 기술 척도.

\*  $p < .05$ , \*\*  $p < .01$ , \*\*\*  $p < .001$ .

에 고려하기 위하여 다변인 다중 회귀분석 (Multivariat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다변인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독립변수인 성격 5요인의 하위 요인들의 다변인 다중 회귀분석결과는 친화성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외향성,  $F=7.14$ ,  $p<.001$ ; 성실성,  $F=10.21$ ,  $p<.001$ ; 개방성,  $F=9.88$ ,  $p<.001$ ; 정서적 안정성,  $F=5.13$ ,  $p<.001$ ).

종속변수인 우연 기술을 설명하는 독립변수의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호기심에 대하여 성격 5요인 중 외향성( $\beta=.27$ ,  $p<.001$ )과 개방성( $\beta=.30$ ,  $p<.001$ )이 정적으로 예측했으며, 성실성( $\beta=-.13$ ,  $p<.05$ )과 정서적 안정성( $\beta=-.12$ ,  $p<.05$ )은 부적으로 예측했다. 인내심에 대해서는 외향성( $\beta=.16$ ,  $p<.01$ ), 성실성( $\beta=.20$ ,  $p<.001$ ), 개방성( $\beta=.11$ ,  $p<.05$ ), 정서적 안정성( $\beta=.17$ ,  $p<.01$ )이 모두 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연성에 대해서는 성격 5요인 중 외향성( $\beta=.15$ ,  $p<.01$ ), 개방성( $\beta=.23$ ,  $p<.001$ )이 정적으로 예측한 것에 반해 성실성( $\beta=-.15$ ,  $p<.05$ )은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낙관성은 외향성( $\beta=.11$ ,  $p<.05$ ), 성실성( $\beta=.16$ ,  $p<.01$ ), 개방성( $\beta=.12$ ,  $p<.01$ ) 모두에서 정적으로 예측했다. 우연기술의 마지막 하위 요인인 위험감수에 대해서는 외향성( $\beta=.14$ ,  $p<.01$ )과 개방성( $\beta=.28$ ,  $p<.001$ )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 $\beta=.10$ ,  $p<.05$ )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했다.

## 논 의

본 연구는 Mitchell 등(1999)의 계획된 우연 이론을 바탕으로 성격 5요인(경험에 대한 개

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정서적 안정성)이 우연 기술의 하위 요인(호기심, 유연성, 인내, 낙관성, 위험감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변인 다중회귀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성은 우연기술의 다섯 가지 하위 변인과 모두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방성은 우연기술의 다섯 가지 하위 변인을 모두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Mitchell 등(1999)의 계획된 우연 이론에 의하면, 높은 우연 기술을 가진 사람은 우연한 사건을 진로 기회로 인식하며 이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지닌다. Krumboltz(2009) 역시 개방적인 성격은 우연적 사건을 통한 경험과 학습을 극대화하여 진로 기회를 증대시켜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종합하면, 개방성이 높은 내담자는 우연적인 사건을 통해 더 많은 진로 기회를 만든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이 보고한 결과에 따르면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고 유연성이 높다(Carver & Connor-Smith, 2010; McCrae & Costa, 1985; John & Srivastava 1999; McCrae & John, 1992). 새로운 학습 기회를 탐색하는 것을 뜻하는 호기심과 태도나 환경을 적응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뜻하는 유연성은 태도와 생각이 열려 있는 것을 뜻하는 개방성의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개방성은 낙관성(Lounsbury et al., 2003; Lounsbury et al., 2005), 진로 관련 위험감수와 상관이 높다(Holland & Gottfredson, 1994; Nicholson et al., 2005). 새로운 기회를 접할 가능성을 뜻하는 낙관성과 행동을 취하는 특성을 보여주는 위험감수는 새로운 우연적 경험을 접하기 위해 열린 자세를 취하는 개방성의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Hirschi(2010)는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개방성이 높을수록 우연 사건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4년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 역시 개방성이 높을수록 우연기술도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개방성이 높은 직장전환기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우연한 사건을 진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고르게 습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진로상담자는 개방성이 높은 학생들이 우연 기술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 장면에서 개입할 수 있다. 또한, 개방성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그들의 성격적인 특성을 존중하고 형성된 기질 및 성격 특성의 재형성이 어려울 수 있음을 강조하되, 상담자는 진로탐색과정에서 개방적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내담자가 진로장면에서 개방적인 태도를 추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입은 개방성이 낮은 내담자들이 더 많고 다양한 진로 기회를 접함으로써 우연기술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추후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질적 요인을 가진 내담자들이 어떠한 변인을 통해 우연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제3의 변인을 밝혀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외향성도 우연기술의 다섯 가지 하위 변인과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정적으로 우연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외향적인 성격을 지닌 내담자는 외부 활동을 선호하고 행동 지향적인 측면을 보이는데(Goldberg, 1992; Laney, 2002), 이러한 성향은 우연기술 중 새로운 활동과 기회 탐색을 뜻하는 호기심의 특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Mitchell et al., 1999).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는 외향성을 지닌 사람들이 내향성을 지닌 사람들에 비해 최대한 많은 기회를 활용하고(Zafar & Meenakshi, 2011), 결정을 내릴 때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Rim, 1963). 이러한 외향성의 특성은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는 특성을 가진 낙관성, 태도 혹은 환경에 적응적으로 변화시키는 유연성, 그리고 불확실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추진하는 특성을 가진 위험감수와 연결될 수 있다. Hirschi(2010)의 직장전환기의 학생들에 대한 우연 사건의 영향력을 살핀 연구에 따르면, 외향적인 학생들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우연 사건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우연 기술의 모든 하위 변인을 정적으로 예측했던 개방성과 마찬가지로, 외향적인 학생들은 우연한 사건을 진로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진로상담자는 외향성이 높은 학생들은 우연 기술을 잘 활용하도록 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로 전환 국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우연한 만남은 영향력 있는 요인이라는 선행 연구를 고려하면(신순옥 등, 2015), 외향성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진로상담 장면에서 그들의 형성된 기질과 성격 특성을 존중하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로 기회를 탐색하고 인식하도록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외향성이 낮은 내향적인 내담자들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진로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 진로자기 효능감 및 진로결정 등 긍정적인 진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우연한 상황에서 진로 기회를 탐색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내향적인 특성의 내담자가 사회적인 장면에서 진로 기회를 탐색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온라인 등 서면을 통해 직업 인터뷰를 함으로써 그들의 성격적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통해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실성은 우연기술의 일부 변인들만 유의하게 예측했다. 성실성은 다른 성격 요인보다 더 안정적이다(Barrick & Mount, 2000; Ferguson, 2004; Terracciano et al., 2008). 본 연구에서 성실성은 호기심, 유연성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쳤고, 인내심과 낙관성에는 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실성은 진로결정(Career decideness)을 정적으로 예측한다(Lounsbury et al., 1999; Lounsbury et al., 2005). 계획된 우연 이론에서 호기심과 유연성은 우연히 발생하는 외부 사건들을 기회로 받아들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이다(Mitchell et al., 1999). 이는 한 번 결정을 내리면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는 진로결정과는 다소 상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론과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진로 결정과 상관이 높은 성실성이 높아지면 우연적 사건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기심과 유연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성실성은 안정적인 경향을 가지는 인내심과 낙관성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실성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인내심과 같은 안정적인 우연 기술을 활용하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가변적인 진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유연성이나 호기심은 상대적으로 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진로상담자는 안정적인 성향이 높은 학생들 중 목표 설정이 안 되었거나 진로탐색이 필요한 내담자들에게는 다양한 진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진로 과업을 제시하고, 새

로운 경험과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우연한 사건을 진로 기회로 학습하게 촉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성향이 높은 내담자들이 그들의 안전지역 바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교외에서 제공되는 진로 관련 프로그램, 인턴십 기회 등을 알려주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진로경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단, 그들의 성격적인 특성 상 원하는 진로를 위해 성실성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향을 추구하는 내담자들에게는 각 개인의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상담자가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서적 안정성은 우연기술의 일부 변인들만 유의하게 예측했다. 정서적 안정성은 다른 성격 요인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성실성과 함께 주로 탐색된다(Barrick & Mount, 2000; Ferguson, 2004; Terracciano et al., 2008). 성실성과 유사한 맥락에서 정서적 안정성은 인내심과 위험감수를 정적으로 예측하고, 호기심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실성과 마찬가지로,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학생들은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이나 외부 자극들에 대해 호기심을 발휘할 가능성이 외향성, 개방성이 높은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진로상담자는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내담자가 우연한 외부 사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할 때에 그 사건에 호기심을 가지고, 사건의 긍정적인 의미, 내담자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다섯째, 친화성은 우연 기술의 하위 변인들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

서 성격 5요인 중 친화성은 취업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 등과 같은 진로 변인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권해수, 2014; 송지은, 이정운, 2014). 또한, 성격 5요인과 진로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탐색한 Hartman과 Betz(2007)의 연구에서 친화성은 다른 성격 하위 변인과 달리 진로자기효능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이외의 진로 분야 선행 연구에서 친화성은 자주 언급되지 않았으며, 진로 변인에 대해 친화성이 갖는 구체적인 효과를 밝힌 연구도 드물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진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우연 기술과의 관계에서 친화성이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친화성과 같은 기질은 변화시키기 어려우므로, 진로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들의 타고난 기질을 존중하며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친화성이 높은 학생들은 관계 중심적이며, 타인과의 협력과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진로 장면에서 자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한계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지역에 속한 한 4년제 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생에게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무선 표집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성격 5요인과 우연 기술 하위 변인들과의 관계를 특정 시점에 한하여 횡단으로만 측정하였다. 대학교 시기는 진로와 관련하여 여러 환경요인들을 접하는 때이므로 우연 기술의 변화가 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우연 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대학교 시기의 우연 기술 변화양상을 종합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진로 발달 영역에서 주목받고 있는 최신 진로이론을 근거하여 수행되었으나, 양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해 도출한 결과를 뒷받침할 만한 경험적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이어 추후 연구에서는 우연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성격 특성과 우연 기술의 관계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연구 대상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별, 진로상담경험여부, 진로결정여부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연구 모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상담적 함의를 구체적으로 충분히 제안할 수 있도록 성별, 진로 관련 정보, 학과 정보 등을 투입하여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계획된 우연 이론에 근거하여 우연적 사건을 기회로 만드는 기술과 성격 5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개인의 진로결정에 대한 우연적 사건의 영향력이 확인되었으나, 진로 기회를 잡기 위한 구체적 전략인 우연 기술과 관련해서는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우연 기술이 개인의 성격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밝혀냄에 따라 후속 연구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추후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학생의 성격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성격이 예측하는 우연 기술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절 변인이나 매개 변인을 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진로 선택에 있어서 중요

한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대학생들은 학교 교육을 마치고 직업세계로 이동하는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진로를 선택하는 일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전의 연구들은 계획된 우연 기술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만을 살펴봤다. 그러나 본 연구에선 기존 연구에서 나아가 대학생의 우연 기술의 예측변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상담 장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성격과 같은 기질의 경우,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로상담 장면에서는 특정 성격 유형을 지닌 내담자에게 부족한 우연 기술을 고려하여 즉시 개입할 수 있다. 이러한 개입을 통해 상담자는 내담자의 우연 기술에서 부족한 부분의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내담자의 향후 진로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진로상담자가 진로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진로상담자는 내담자의 성격 특성을 기반으로 내담자가 어떤 우연 기술을 활용할지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우연적 사건을 진로 기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내담자가 우연 기술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구체적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상담자는 우연 기술을 예측하는 기질을 이해함으로써 진로 미결정 상태에서 학생들이 흔히 겪는 진로의 유예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권해수 (2014).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성격 5

요인, 역기능적 진로사고, 정서지능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해*, 35(2), 45-64.

김나라, 방재현, 정진철 (2012). 진로진학상담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및 요구 분석. *실과교육연구*, 18(4), 249-268.

김봉환 (2008). 진로상담: 국가경쟁력 향상과 진로 및 직업상담의 과제. *상담학연구*, 9(4), 1685-1702.

송지은, 이정운 (2014). 대학생의 성격 및 동기변인에 기초한 군집유형별 진로준비행동에서의 차이. *상담학연구*, 15(3), 1183-1198.

신순옥, 박서연, 이상희 (2015). 진로 결정 과정에서 우연 경험 연구: 전환 국면이 있는 코칭 및 상담 분야 종사자를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4(1), 1-27.

정지후, 이상희 (2014). 진로정체감 6개 단계에 따른 정체감 스타일, 진로신념, 우연기술의 차이. *진로교육연구*, 27(1), 151-170

황현덕, 장선희, 정선화, 이상민 (2012). 고등학생의 계획된 우연 기술 수준에 따른 진로포부와 직업 탐색 행동의 관계탐색. *청소년상담연구*, 20(2), 193-210.

Arnold, J., & Jackson, C. (1997). The new career: Issues and challenge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25(4), 427-433.

Barrick, M. R., & Mount, M. K. (2000). Select on conscientiousness and emotional stability. *Handbook of principles of organizational behavior*, 15, 19-39.

Betsworth, D. G., & Hansen, J. I. C. (1996). The categorization of serendipitous career development ev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91-98.

- Bright, J. E., Pryor, R. G., & Harpham, L. (2005). The role of chance event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3), 561-576.
- Buss, D. M. (1989). Conflict between the sexes: Strategic interference and the evocation of anger and ups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5), 735-747.
- Carver, C. S., & Connor-Smith, J. (2010). Personality and cop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1*, 679-704.
- Ferguson, E. (2004). Conscientiousness, emotional stability, perceived control and the frequency, recency, rate and years of blood donor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79*(3), 293-314.
- Goldberg, L. R. (1992). The development of markers for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Psychological assessment, 4*(1), 26-42.
- Hartman, R. O., & Betz, N. E. (2007). The Five-Factor model and career self-efficacy general and domain-specific relationship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2), 145-161.
- Hirschi, A. (2010). The role of chance events in the school-to-work transition: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personality and career development variabl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7*(1), 39-49.
- Holland, J. L., & Gottfredson, G. D. (1994). CASI: Career Attitudes and Strategies Inventory: An inventory for understanding adult careers.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John, O. P., & Srivastava, S. (1999). The Big 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2*, 102-138.
- Kim, B., Jang, S. H., Jung, S. H., Lee, B. H., Puig, A., & Lee, S. M. (2014).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career engagemen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certaint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2*(1), 56-69.
- Kim, B., Jung, S. H., Jang, S. H., Lee, B., Rhee, E., Cho, S. H., & Lee, S. M. (2014).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Planned Happenstance Career Invent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2*(3), 239-253.
- Kim, B., Lee, B. H., Ha, G., Lee, H. K., & Lee, S. M. (2015). Examining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in school-to-work transit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2*, 511-523.
- Krumboltz, J. D. (1998). Serendipity is not serendipitou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4), 390-392.
- Krumboltz, J. D. (2009). The happenstance learning the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2), 135-154.
- Laney, M. O. (2002). *The introvert advantage: How to thrive in an extrovert world*. Workman Publishing.
- Lounsbury, J. W., Hutchens, T., & Loveland, J. M. (2005). An investigation of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career decidedness among early and middle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1), 25-39.
- Lounsbury, J. W., Loveland, J. M., Sundstrom, E. D., Gibson, L. W., Drost, A. W., &

- Hamrick, F. L. (2003). An investigation of personality traits in relation to career satisfac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3), 287-307.
- Lounsbury, J. W., Saudargas, R. A., Gibson, L. W., & Leong, F. T. (2005). An investigation of broad and narrow personality traits in relation to general and domain-specific life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6*(6), 707-729.
- Lounsbury, J. W., Tatum, H. E., Chambers, W., Owens, K. S., & Gibson, L. W. (1999). An investigation of career decidedness in relation to "Big Five" personality constructs and life satisfaction. *College Student Journal, 33*(4), 646-656.
- McCrae, R. R., & Costa Jr, P. T. (1985). Openness to experience. *Perspectives in personality, 1*, 145-172.
- McCrae, R. R., & Costa Jr, P. T. (1997). Conceptions and correlates of openness to experience. *Handbook of personality psychology* (pp. 825-847). San Diego, CA, US: Academic Press.
- McCrae, R. R., & John, O. P. (1992). An introduction to the five factor model and its ap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60*(2), 175-215.
- Mitchell, K. E., Levin, A. S., & Krumboltz, J. D. (1999). Planned happenstance: Constructing unexpected career opportuniti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7*, 115-124.
- Mooradian, T. A., & Nezelek, J. B. (1996). Comparing the NEO-FFI and Saucier's Mini-Markers as measures of the Big Fiv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2), 213-215.
- Nicholson, N., Soane, E., Fenton O'Creevy, M., & Willman, P. (2005). Personality and domain specific risk taking. *Journal of Risk Research, 8*(2), 157-176.
- Pryor, R. G., & Bright, J. E. (2003). Order and chaos: A twenty-first century formulation of career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55*(2), 121-128.
- Rhee, E., Lee, B. H., Kim, B., Ha, G., & Lee, S. M. (2015). The relationship among the six vocational identity statuses and five dimensions of planned happenstance career skill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1*-11. doi: 10.1177/0894845315602120.
- Rim, Y. (1963). Risk-taking and need for achievement. *Acta psychologica, 21*, 108-115.
- Saucier, G. (1994). Mini-markers: A brief version of Goldberg's unipolar Big-Five marker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3*(3), 506-516.
- Savickas, M. L., Nota, L., Rossier, J., Dauwalder, J. P., Duarte, M. E., Guichard, J., & Van Vianen, A. E. (2009). Life designing: A paradigm for career construction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3), 239-250.
- Terracciano, A., Löckenhoff, C. E., Zonderman, A. B., Ferrucci, L., & Costa Jr, P. T. (2008). Personality predictors of longevity: activity, emotional stability, and conscientiousness. *Psychosomatic medicine, 70*(6), 621-627.
- Zafar, S., & Meenakshi, K.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troversion-introversion and risk-taking in the context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Studies in Language Learning*, 1(1), 33-40.

원 고 접 수 일 : 2015. 12. 28

수정원고접수일 : 2016. 03. 14

게 재 결 정 일 : 2016. 04. 21

##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Planned Happenstance Skills: A Theoretical Exploration

Boyoung Kim<sup>1)</sup>                      NaYeon Yang<sup>1)</sup>                      Huk Yaung<sup>1)</sup>  
Joonyoung Yang<sup>1)</sup>                      Sung Hoon Chung<sup>2)</sup>                      Sang Min Lee<sup>1)</sup>

<sup>1)</sup>Korea University

<sup>2)</sup>Positive Commun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openness to experience, conscientiousness, extraversion, agreeableness and emotional stability) and five sub-scales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in South Korea. Multivariat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five personality traits on five sub-scales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The results showed that openness to experience and extraversion positively related with all five sub-scales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and positively affected planned happenstance skills while conscientiousness and emotional stability not only positively related with but predicted a few sub-scales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could be utilized in counseling services and career programs to figure out which sub-scales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can be developed based on the client's personality traits.

*Key words* : big five personality traits, planned happenstance skills, multivariate multiple regression, career counseling